



## 꼬맬까말까 수선집과 비밀의 책

주미경 글 | 심보영 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 책 소개

꿰맬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수선하는 방덕 씨의 낡은 수선집. 얼마 전 이곳 2층으로 세 든 달모는 한밤중 들리는 수상한 소리에 끌려 1층 수선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방덕 씨는 그믐달이 뜬 밤 무엇을 하는 것일까? 백 년 묵은 책을 찾아 헤매는 까닭은 무엇일까? 달모와 생강 콤비의 진땀 빼는 활약이 따듯함과 코믹함을 넘나드는 이 이야기는 『와우의 첫 책』으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은 주미경 작가의 작품이다. 이야기가 끝나 갈 즈음엔, 삼거리 골목 주민들 중 딴 세상에서 온 이는 누구고 아닌 이는 누구인지, 나아가 내가 있는 여기가 책 속이고 책 속이 진짜 세상은 아닌지, 고개를 가웃하다가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나가고 싶은 에너지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그럴 땐 주문을 외워 봐도 좋겠다. 저마다 느낌 있게. 차차둥 하랄랄.

## 활동1 우리 동네 이름과 유래

방덕 씨와 달모가 사는 동네 이름은 '도화동'입니다.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복숭아 도(桃)'와 '꽃 화(花)' 자를 써서 '도화동'이기도 하고, <심청전>의 배경이 도화동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동네 이름의 유래도 알아봅시다.

동네 이름

동네 이름의 뜻이나 유래



## 활동2 이야기 속, 속속 들여다보기

『고멜까말까 수선집과 비밀의 책』에는 옛이야기나 고전소설 속의 인물과 동물, 소재 등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 동물, 소재 등이 있었는지 적어 보아요. 기억나지 않으면 책을 다시 펼쳐 보세요.

심청전 : 방덕(뽕덕어멈),

콩쥐팥쥐전:

흥부전 :

흥길동전:



## 활동3 가짜 뉴스

노분 할머니는 ‘꼬맬까말까 수선집’이 동네에 오고 나서 안 좋은 일만 생겼다며, 방덕 씨를 못마땅해합니다. 그때 생강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안 된다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요. 허위사실유포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뉴스 기사나 내 주변에서 가짜 뉴스 사례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어 보아요.

허위사실유포죄란?

가짜 뉴스 사례

가짜 뉴스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정



달모와 생강이도 방덕 씨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했지만, 선입견의 부당함과 미안함을 느끼며 방덕 씨에 대해 알아가지요.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해했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대상을 선입견을 갖고 본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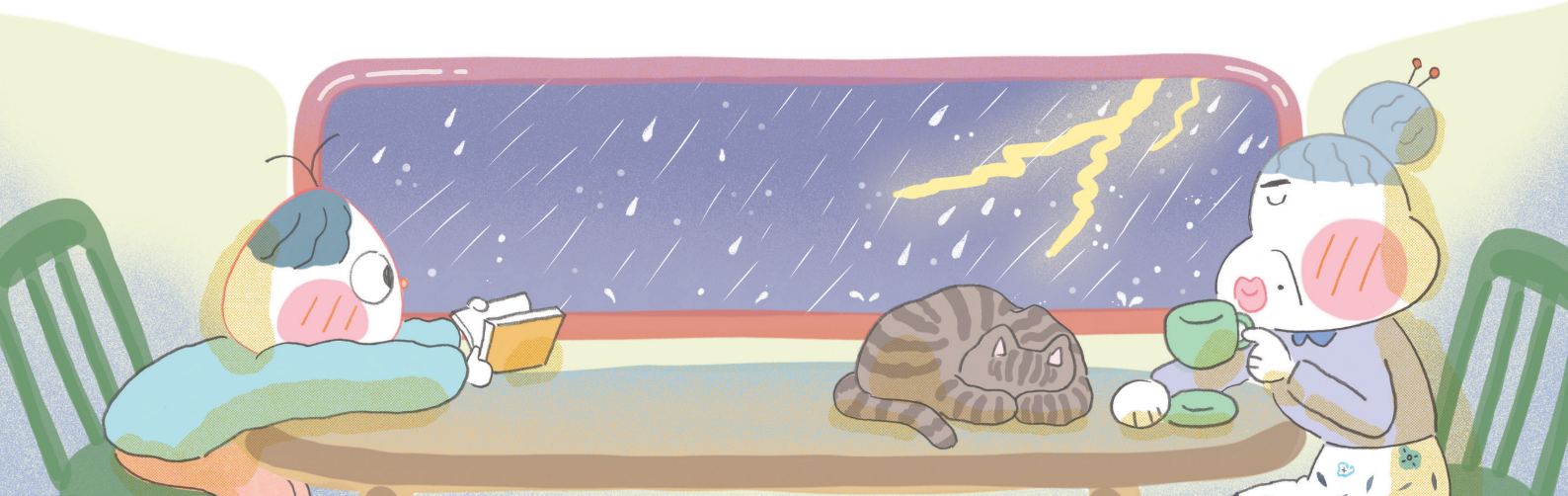
그 대상을 적어 보세요.



갖고 있었던 선입견



알고 나서 풀게 된 오해



## 활동4 책 속으로, 책 밖으로

만약 여러분이 달모처럼 책 속으로 들어가는 주문과 책 밖으로 누군가를 불러낼 주문을 알고 있다면

어떤 책 속으로 들어가고 싶나요?  
(또는 책 밖으로 불러내고 싶은 인물)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나요?



왜 그 책 속으로 들어가고 싶나요? (또는 책 바깥으로 불러내고 싶은 이유)



내가 책 속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하고 마음껏 활약해 보세요. (또는 책 속의 인물이 바깥으로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이야기를 지어 봅시다.



## 활동5 기억에 남는 문장

『꼬말까말까 수선집과 비밀의 책』 속 인물들의 대사 중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적어 보아요.



방덕 씨



노분 할머니



스님

"야, 나도 지금 공부 중이야.  
어떤 사람을 알아 가는 중이거든."



달모



생강

